제11강 비극의 탄생과 디오니소스 축제 (1)

비극과 디오니소스와의 관계
- 비극의 탄생을 밝히는 근거는 없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 제3장

"이러한 작품들이 드라마라고 불리게 된 것도 이러한 작품에서는 등장 인물들이 실제로 행동하기(dran)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도리스인들은 자기들이 비극과 희극을 창안해 냈다고 주장하고 있다. (희극은 메가라인들이 창안해 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희랍 본토에 사는 메가라 인들은 메가라가 민주정체가 되었을 때 그곳에서 희극이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시켈리아 섬에 이주한 메가라 인들은 그곳 출신인 에피카르모스가 기오니데스나 마그네스보다 훨씬 이전 사람이라는 이유를 들어 자기들이 희극을 창안해 냈다고 주장하고 있다. 펠로폰네소스의 도리스인들 중에는 비극까지도 자기들이 창안해 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그러한 주장의 근거로 komoidia(희극)와 drama(드라마)라는 말을 내세우고 있다. 그들의 말인즉, 자기들은 도시 주변의 촌락을 kome라고 하는데, 아테나이인들은 demos라고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komoidoi(희극 배우들)란 말은 이들이 음주유락 kpmazein)한데는 데서 유래한 것이 아니라, 이들이 인기를 잃고 도시로부터 추방되어 주변 촌락을 순회한다는 데서 유래한 것이라고 한다. 또 자기들은 행동하는 것을 dran이라고 하는데, 아테나이인들은 prattein이라고 한다는 것이다.
모방의 차이점의 수와 성질에 관해서는 이만 해 두기로 하자."

- drao 어원→ 동사형 dran (행위하다)→ drama(드라마)
- praxis (행위)→ 동사형 prattein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 제4장

"아무튼 비극은 처음에 즉흥적인 것으로부터 발생하였다. 희극도 마찬가지였다. 비극은 디튀람보스의 지휘자로부터 유래하였고, 희극은 아직도 많은 도시에서 관습으로 남아 있는 남근 찬가(男根 讚歌)의 지휘자로부터 유래하였다.
그후 비극은 그때까지 알려졌던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계속 계량함으로써 점진적으로 발전하였다. 그리고 많은 변화를 거쳐 본연의 형식을 갖추게 된 뒤에야 비로소 비극의 발전은 정지되었다.

1. 배우의 수를 한 사람에서 두 사람으로 늘리기는 아이스퀼로스가 처음인데, 그는 또한 코로스의 역할을 줄이고 대화가 드라마의 중심이 되게 하였다.

2. 소포클레스는 배우의 수를 세 명으로 늘리고 무대 배경을 도입하였다.

3. 비극은 또한 그 길이가 길어졌다. 비극은 사튀로스극(Satyros 劇)으로부터 탈피함으로써 짧은 스토리와 우스꽝스런 조사(措辭)를 버리고 위엄을 갖추게 되었는데, 이는 다 후기에 일어난 일들이다. 그리고 그 운율도 사절운율(四節韻律)에서 단장격으로 운율로 바뀌었다.
처음에 장단격 사절 운율(trochaic tetrametron)이 사용되었던 것은, 당시의 비극은 사튀로스 극이었고 지금보다 무용적인 요소가 더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화가 도입되자 자연은 스스로 이에 적합한 운율을 발견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단장격 운율(短長格 韻律)은 대화에 가장 적합한 운율이기 때문이다. 그 증거로 우리는 대화할 때 대개 단장격 운율을 사용하는 데 비해, 육절 운율(hexameter, 六節 韻律)을 사용하는 경우는 드물며, 그것은 보통 어조를 이탈하였을 경우에 한한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4. 그 외 또 한 가지 변화는 삽화(epeisodion)의 수가 많아졌다는 것이다. 그밖에 여러 가지 장식물(의상, 가면 따위)과 그것이 첨가되게 된 경우를 일일이 설명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방대한 일이므로 이미 설명한 것으로 해 두자."

헤로도토스의 『역사』

"기원전 600년 아리온(Arion)이 디튀람보스에 문학적 형식을 부여했다."

→ 아리온이 최초의 비극 작가라는 사실을 입증할 확증은 없다.

이름 유래

- 트라고디아: tragos(산양, 염소)+ode(노래)=산양의 노래 / 산양 형상을 했다?
- 기원전 6세기 후반 아테네에서 산양이 아니라, 말[馬]의 형상을 한 반인반수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디오니소스는 어떤 神인가

- 호메로스의 책에는 등장하는 않는다

-Dios(=zeus)+Nysan(=인도의 산): 인도에서 유입된 신이다? 올림포스 신과는 사뭇 달랐다. 올림포스의 경우 <빛> 그 자체였다. 명료한 형상 속에서 등장하는데, 그것은 그리스적인 합리성의 뿌리가 된다. 형상은 개별화를 수반하며, 제한을 통해 개별자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즉 형상-제한-개별성의 흐름이 이어지는데, 이 모든 것을 대표하는 신이 바로 아폴론이다. 아폴론이 빛을 상징하고, 질병과 치유의 능력을 가진 것은 우연이 아니다.